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1일 수요일 (음 4월 26일) 제157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송하진 도지사, 자매결연도시 미국 워싱턴주 방문 성과

교류증진 합의를 체결 협력 강화

국제교류센터 연계 사업 발굴
한스타일 기념관 준공으로
전북 브랜드 가치 제고
대학 등과 탄소 협약도 맺어

자매결연 체결 후 10여년만에 이뤄진 전북도의 워싱턴주 방문으로 향후 양 지역 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24일부터 교류 2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주를 방문한 전북대표단(이하 대표단)은 29일 저녁 늦은 시간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관련기사 16면)

이번 송 하 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지난해 8월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전북 방문시에 올해 미국방문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04년 강현욱 전북도지사의 자매결연 이후 12년만이다.

대표단은 먼저 미국의 항공기 제조 회사 및 방위산업체로 유럽의 에어버스와 함께 항공업계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워싱턴주의 보잉사(펜튼공장)를 방문해 보잉사의 스코트 캠펠 부회장과 제임스 쇼우 국제담당 이사 등과 간담회를 통한 항공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대표단은 '전북-워싱턴주 교류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교류협력 증진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탄소복합소재산업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추진, 공무원 상호과견 및 민간 교류 협력 강화 등 교류협력을 한층



자매결연 체결 후 10여년만에 이뤄진 전북도의 워싱턴주 방문으로 향후 양 지역 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시 피어스칼리지 체육관에서 열린 자매우호도시 한스타일 전시관 개막식에 한복을 입은 송하진도지사들 비롯해 피어스칼리지 총장, 워싱턴주 상원, 하원의원 등 참석자들이 한지테이프를 자르고 있는 모습.

강화하고, 자매도시로서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재외동포들과 만난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한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국제교류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 발굴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국적인 전통문화와 가치가 잘 보존된 전북의 한스타일도 워싱턴주에 소개됐다. 또한 '한스타일 공간연출' 기념관 준공식을 가져 앞으로 기념관

은 전북을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전북 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병철)은 타코마시 교육청과 MOU협약을 통해 앞으로 청소년들의 홈스테이 교류 사업 등을 통해 양지역간 활동무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센터는 실행이 가능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등에 대해서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내년부터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을 위한 '전북도-워싱턴주-탄소기술원-워싱턴대' 학의 탄소 MOU 4차 협약식은 전북

탄소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미주시장 교두보 마련과 전북 탄소산업의 업그레이드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끝으로 대표단은 하와이주지사와의 면담을 하고 관광설명회를 통해 하와이 지역 관광객들이 전북도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도에서는 미국 방문에서 협회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자매도시인 워싱턴주와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본사 손안의 뉴스 확대 개편

정론직필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매일 신문이 올해 홈페이지를 새 단장한데 이어서,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뉴스를 제공해드리는 '모바일 페이지'를 1일부터 확대 개편했습니다.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PC를 통해서 전주매일의 뉴스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스마트 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전주매일신문의 뉴스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매일 신문은 스마트 폰을 통해 독자제보는 물론 더욱 다양한 소식을 전달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전주매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어버이연합 의혹' 연루자 與 보좌진 채용

"새누리 비례대표 비서관에... 지난해까지 전경련 근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인사가 새누리당 보좌진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대학생포럼 출신인 윤모 씨는 최근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모 의원의 비서관으로 채용됐다. 윤 씨는 이번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하기도 했다.

아권 관계자는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윤씨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의원의 전경련과 관련이 있는 인사로 어버이연합 사건 자체가 새누리당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해당 의원은 그러나 "금시초문이라 확인해봐야 한다"며 "후원 의혹과 그 비서관을 엮은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몰라 어떤 말씀도 드릴 수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경련이 2010년부터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국대학생포럼을 후원해왔

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12월 한국대학생포럼 후원의 바에는 자유경제원 원장과 부원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박병계 대민주 의원은 이날 "한국대학생포럼의 2011년도 대표였던 윤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전경련에 채용됐다"며 "전경련 사회협력팀의 조사역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근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씨가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으로 있을 당시, 심인섭 어버이연합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반대로 추선희 사무총장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며 "어버이연합과 대학생포럼은 여러집회를 함께 연대해서 아권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아권 관계자 또한 "한국대학생포럼과 어버이연합, 전경련 사이에 의혹이 있는데 윤 씨가 함께 활동한 대가로 전경련에 취직했던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주 기자

'세무 문제, 마을세무사와 상의하세요'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달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행정부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주민들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 지정된 1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개월간 행정부와 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재능기부를 원하는 848명의 세무사를 모집했다. 이들 세무사들은 기존 서울과 대구의 마을세무사와 함께 6월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모집된 마을세무사는 마을세무사 지원자 수, 읍면동 수,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된다. 시군구마다 1~3개 읍면동마다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를 배정하거나 시군구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행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농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부와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

행자부-한국세무사회, 이달부터 무료상담 서비스 전국 개시

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면 된다. 전화와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홍 장관은 "앞으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민본자치의 중심! 순창군의의회!

-군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천년의 맛!
화려한 경관!
맛과 멋의 고장
순창으로 오세요~

순창군의의회 홈페이지
www.sunchangcouncil.go.kr